

道藏

地域文化・地域人情・地域情報

靈 蹟

24

1984年 3

(전주문화원)

特輯① 우리에게 代父가 있는가? 〈藝術界篇①〉

金汶喆・柳昌熙・田炳夏・黃昭淵
姜玉喆・趙炳喜・蘇秉順・崔炳吉



特輯②

1984年 新春文藝 당선 作家選

안도현・진홍원・신광식・박상재

* 全北禮讚論 / 金東圭

* 故郷을 생각한다 / 李文成

* 名士의 廣場 / 梁熙天

* 時論 / 安中榮・郭孝喆・金駿鎭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나아가 내 앞에 거하면 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1~32)

편집후기

◇...甲子年 새해를 맞아 本誌를 사랑
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과 지금까지 집필
해 주신 필자 여러분의 가정애 항상 행
운이 가득하기를 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라며 또한 편집에 필
요한 서슴없는 조언을 바란다.

◇...금년부터 本誌의 특집을 「우리에게 代父가 있는가?」라
는 논제를 가지고 밀고 나가려 한다. 우리 전북에도 전남의 경
우처럼 南農이나 毅齊, 吳之鎬 같은 정신적 지주가 있는가?
그러나 오늘의 우리에게서 이런 代父가 없다고 안타까워 하
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여 本誌에서는 앞으로 중점적으
로 다루려고 한다. 文學, 音樂 등 예술계는 물론이고 政治, 社
會, 經濟界 등 총 망라해서 문화사적 인간자원과 정신적 지주
를 찾고자 한다.

〈張〉

◇...지난 호까지 12회에 걸쳐 老軀에도 불구하고 「나의 文學
60年」을 집필해 주신 金海剛 선생께서 몸이 불편하여 집필을
중단하게 됐다. 이 점 독자 여러분의 해량을 바라며 앞으로 완
결되는 대로 꼭 집필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 불행중 다행이
라 여긴다.

◇...特輯Ⅱ는 전북출신의 84년도 신춘문에 당선작가 작품을
모아 보았다. 영롱한 아침 이슬처럼 등단한 작가의 작품을 읽
으며 마음의 여유와 새해의 꿈을 펼쳐 보길 바란다.

〈曹〉

蘆

嶺

第24號

1984年 3月

1984年 2月 28日 印刷 / 1984年 3月 15日 發行

《非 賣 品》

發行人 : 金 光 鎬
編輯人 : 張 明 洙
(「蘆嶺」編輯委員會)

印刷人 : 咸 清
文公部 登錄番號 : 바-962號 登錄日字 : 1981年 8月 10日

發行所 : 社團 全州文化院
法人
全州市 慶園洞 1街 104~5 ☎ ⑥ 7500

印刷所 : 鮮明印刷社 ☎ ②0030-②2878

■ 本誌는 韓國圖書雜誌 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 實踐要綱을 준수한다.

□ 全北地方 文化暢達을 위한 綜合誌

地域文化
地域人情
地域情報

蘆

嶺

제24호 (1984年 3月) 目 次

- 8 卷頭 隨想 / 우리에게 代父는 있어야 한다 張明洙
10 新年 辭 / 향토의 깊은 뿌리로 성장 金光鎬

* 特輯① / 우리에게 代父가 있는가? <藝術界 藝文>

- 13 全北 韓國畫壇의 구심점을 찾아야 金汶喆
18 國展 통해 全北畫壇 널리 소개 柳昌熙
23 地方時代를 개척한 全北美術 田炳夏
27 鄉土畫壇 지킨 선배의 자세 귀감 黃昭淵
32 참다운 代父란 他人의 눈에 있어 姜玉喆
37 宋一中·李三晩의 淸脈을 본받아야 趙炳喜
45 不義에 편승않는 고매한 作家정신 蘇秉順
48 偉大한 예술가는 대중에 의해 호칭 崔炳吉

- 52 * 全北 禮讚論 / 입맛 돋구는 미각과 文化產物들 ... 金東圭
56 * 故鄉을 생각한다 / 고향명칭의 가계에 자주들러 ... 李文成
60 * 名土의 廣場 / 참된 價値의 追求 梁熙天

* 時 論 *

- 64 보이지 않는 秩序 安中榮
68 오늘날은 컴퓨터 시대 郭孝喆
71 ME 혁명시대의 경영전략 金駿鎭

□ 隨 筆 □	74	다시 돌아보는 이웃	金英姬
	75	成年遺憾	金洪善
	77	山과 全北 금융	임돈희
	78	진 도 건	尹信根
	80	忘 却	全相煥
	82	甲子年 새벽에	崔澄子
	85	自然보호의 길	韓秉義

62	* 李鎬堉 칼럼 / 마라톤 추위	李鎬堉
86	* 醫境 / 벗어 주십시오	朴一洲

* 主題있는 散文

88	우리말 우리글 / 상처쌈의 語源	崔昌烈
89	좋은 글귀 풀이 / 竹林七賢과 江左七賢	柳豐淵

* 特輯 ② / 1984年 新春文藝 當選 作家選

98	詩 / 눈	안도현
100	童詩 / 눈보라 길을 간다	진홍원
102	공트 / 창문너머 어렴풋이	申光植
106	童話 / 우리 삼촌 최고	박상재

* 連 載 *

90	世界 8個國 巡訪紀⑨ / 旅程 12萬里	柳鳳永
94	全北映畵 裏面史⑩ / 興行 이야기	卓 光

입맛 돈구는 미각과 文化産物들 :

金 東 圭

〈서울 市立 産業大 교수〉

- * 서울 出身
- * 서울大 工大 卒
- * 日本 名古屋大學 大學 院 卒
- * 慶熙大 助教授

蘆嶺을 처음 넘어본 때가 1960년 가을이었다. 그때 나는 대학을 갓 나와 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는 직장에 있었으므로 주말에는 開拓精神이 넘쳐 흐르는 옆 자리의 친구에 이끌려 세상 인심 좀 공짜로 구경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관광안내서에서 본 대로 新泰仁역에 내렸다. 새벽이었다. 驛員에게 물으니 金山寺는 金堤에서 들어가는 것이 제 길이란 다. 별 수 없어 벤취에 쭈그리고 졸다 보니 갑자기 주위가 시끄럽다.

통학생, 장보따리 짊어진 사람들이 들어와 활기가 넘친다. 차표를 파는 驛員은 무질서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다. 대부분 늘 만나는 손님들인 모양인지, 거스름 돈을 내주면서 이 돈으로 여비에 보태 쓰라느니, 옥분이 분 사는데 보태 쓰라는 등의 대화가 오갈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처음 보면서 익살스럽기도 하지만 훈훈한 人情을 느낄 수 있었다.

아름든 군중과 人情의 훈기에 오그려 들었던 몸은 풀리고 버스편으로 金山寺 동구 밖에 내렸다. 거기서부터는 길을 물어가며, 이른 아침 길을 걸으며 저수지를 거쳐서 도중에 이상한 절(아마도 龍華教에 관계되는 집인 듯,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른다)을 둘러보고 石幢干 너머로 미륵전을 바라보며 절 경내로 들어갔다.

노랑게 물든 은행나무가 가까워짐에 따라 미륵殿에 점점 압도되어 갔다. 殿閣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의 놀라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도 큰 부처님이 왜 서 계시는지. 그때까지 우리는 두어 시간이나 걸어 왔기 때문에 마루에 올라 앉아 쉬기로 하였다.

그런데 어느 틈에 짝곳은 同行 친구가 스님을 마주 보고 합장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덕분에 뒷채로 가서 공양을 들게 되었다. 합장 한번에 밥이 생겼으니 얼마나 인정있는 스님인가.

母岳山 주류 후에 金堤로 나오게 되었다. 夜行車 시간을 알아 놓고 書院이었던 듯한 고전물을 거쳐서 언덕으로 올랐다. 석양에 바라보는 그 넓은 들판을 보며 아까 아침부터의 일을 머리에 떠올렸다. 넓은 들과 높이 서 있는 부처님, 말꼬리를 조금 길게 빼던 驛員의 익살, 이런 것이 모두 全北 文化의 여유가 아니겠는가.

그로부터 수 삼년이 지나 1964년 봄에는 과분한 직분을 맡아 일가도 친척도 없는 全北으로 몸을 옮겨 10년을 지내게 되었다. 全州 토박이 선배님의 이끌림에 의해서였다.

숙식의 은혜를 베풀었던 분은 당대의 V.I.P이셨다. 兩主分은 매우 勤勉・誠實한 분이어서 집채 뒤의 밭을 손수 일구고 계셨다. 그래서 나는 명사에 대한 선입관을 고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말에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가끔 市井見聞도 시켜 주시며 鄉里의 전통과 문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리하여 전북 향토의 내면의 결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처음의 金山寺行에서 느꼈던 특이한 유모어 감각은 이 고장 인정의 풍요로움과 전통文化의 길이와 넓이에서 일어나오는 것임을 차츰 알게 되었다.

全北의 미각은 잘 알려져 있지만 美食이야말로 여윗있는 文化의 產物이 아니겠는가.

宿宅은 종친회의 본부격이었던 모양으로, 가끔 낮선 손님들의 방문도 있었다. 어떤 청년은 아무데에서 온 누구라고 인사를 올리고 여행 중 노자가 궁하다고 호소하면 주인은 더 캐어 묻지도 않고 一飯과 金一封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리 同姓이라 해도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온정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10년을 全北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그 老名士의 덕이 크다.

열마 후 같은 대학에 몸을 두고 있는 流入者들끼리 모여 학교 근처의 한 집에서 雜居(?)하게 되었다. 그 집이 北一面에 소재하였던지라 「北一公館」이라고 堂號(?)를 붙이기까지 하였다. 실은 북송아발 가운데의 農幕같은 곳이었다. 나는 본래 北岳山 밑의 골목 出生이라 하고 뒷편의 전원풍경이 새로운 경험으로 나를 압도하고 있는 터이었다.

마침 강의를 끝내고 몇 학생과 桃源으로 발을 옮기게 된 것이었다. 勞婦 몇이서 복숭아나무 사이에 심어 놓은 고구마 넝쿨을 거두고 있는 중이었다. 그 중 한 학생이 자취를 한다고 고구마 줄기 좀 들어가자고 아주머니들에게 말을 붙였다. 그랬더니 한 부인이 학생보고 직접 건어가라 하며 덩 불여 고구마까지 인심을 썼다. 그 일이 발단이 되어 이런 곳에 살아 보았으면 한다고 청하니 그 부인이 정색을 하더니 자기가 주인인데 마침 방이 비어 있단다. 그래서 방 두 개가 딸린 빈채 하나를 쌀 두 말의 代錢으로 빌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이 고장의 인정에 폭 문히게 되었다.

봄에 복사꽃 피니 그야말로 桃源은 여기였다. 끈끈한 진흙을 딛고 오가며 끈끈한 정에 문히게 되었다. 자취도 해보다가 三食을 「뚝뚝이」 할머니 집에 의탁하기로 하였다. 그 집은 대학 근처의 명소

라고 해도 좋을 만큼 구미 당기는 음식을 후하게 해주었고 할머니 치마폭 만큼이나 풍성한 인심을 베풀었다.

그 후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北一公館」의 식구들은 全北大에 두 셋이 남고, 서울 소재 대학에 넷이 옮겨와 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이나 「北一公館」을 거쳐 나왔다.

모두 五十客이 된 이 봄에 桃源에 다시 회동하여 봤으면 싶다. 아마 그 농원은 이리시 발전 덕에 주택이나 꽤 차 있겠지.

그댈의 아드님은 내가 몸 담았던 학과를 졸업하고 중년의 건축기사가 되어 내가 강의 나가는 보수 교육에 나와서 작년에 만나게 되었다. 桃源은 「金源」이 되어 그댈에 재물을 안겨 주었고 門弟는 향리의 전설화사에서 일 잘하고 있다고, 그댈과는 보통의 인연이 아니다.

지난 초 겨울에 눈에 덮인 金山寺를 다시 보러 갔었다. 여러 번 가 보아도 감회가 새롭기만 하다. 밤차 타고 두 세 시간 걸어 들어갈 때와 같은 낭만은 맛볼 수 없었으나 눈에 덮힌 은행나무 가지가 逆光에 반짝이며 처음 갔을 때의 감흥을 일깨워 준다. 그것이 나의 全北入門이었다고,

눈부시게 달라진 대학 캠퍼스를 들어가니 정문에서 알아 보는 사람도 있다. 발전된 모습 모두가 鄉里를 사랑하고, 연구실을 꾸준히 지킨 분들의 노고의 결실에 다름이 아니겠지.

졸업생 가운데 몇 사람은 나와 같은 아파트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가끔 옛정을 나누고 있다. 이제 는 어엿한 기업체의 간부님들이라 20년 전의 그 어렸던 시절에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향토의 저 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나는 「北一公館」 시절 이후 전북 옥구로 늦장가 들어 매일이 즐거우니 그 모두가 全北의 공덕이 아니겠는가.